

광주 상수도 100년 노후관이 전체 50%

질적 성장에도 12%가 누수
상수도관 교체 최대 과제

광주시에 수도물이 공급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됐다. 재정적이나나 수질 향상면 등에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수도 노후관이 전체 50%가량을 차지해 유수율(有收率)은 여전히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발간을 준비중인 '광주 상수도 100년사'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의 유수율은 2004년 80%를 넘어선 뒤 매년 소폭의 완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전국 평균 유수율이 80%를 넘어선 해가 2006년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 상수도는 이미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난 2018년 기준으로 87.68%의 유수율을 보이며, 아직까지 90%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유수율이란, 상수도 재정과 직결된 것으로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도물이 배·급수관을 통해 각 수용가로 보내지는 송수량 가운데 일정한 과정을 거쳐 급수 수입으로 환원되는 수량의 비율을 일컫는 용어다.

유수율이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주 상수도의 총 연장은 3933km로, 이 가운데 1988년 이전 제작돼 30년 이상이 된 관로가 전체의 14.57%인 573km에 달하고 있다.

제작연수가 20년 이상 된 관로도 전체

의 33.69%인 1323km여서 전체 관로 중 절반 가량이 제작된 지 20년 이상 지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된 배·급수관 교체보다 수원지 확장사업과 정수장 공사 등 수원 확보와 정수시설 건설 등의 시설투자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교체 등 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년 사업으로,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19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지역 노후관 665km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까지 375km의 노후관 정비를 마쳤고, 2025년까지 연차별로 투입해 남은 290km 노후관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노후관 1896km 가운데 노후관 교체 비율은 30%인 665km밖에 되지 않은 만큼 향후에도 노후화 상수도 관로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액이 시급하다. 또한, 유수율 90%대 달성을 위해서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상수도 사업본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급수 불량 지역을 없애고 시내 전 지역에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균등 급수하기 위한 배수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광주 상수도 100년을 맞아 만큼 노후관 정비 사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해남군, 농사철 앞두고 인력 대란 ▶6면

마한과 백제는 죽순과 대나무 관계 ▶18면



KIA, 베테랑들이 뛰다 ▶21면

호남 기반 3당 “17일까지 무조건 통합”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들 합의
“모든 기득권 포기”... 총선 기호 3번 확보 새 변수로 떠올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은 오는 17일까지 조건없는 통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3당의 통합이 현실화 된다면 신당은 원내 3당으로 자리잡으면서 기호 3번을 확보, 4·15 총선 및 호남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2선 후퇴와 합당 방식 문제 등이 순

조름에 풀릴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큰 틀에서 3당의 통합에 합의했다.

3당 통합추진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가 중간 브리핑을 열어 3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사항은 ▲2월17일까지 3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건 없는 통합을 한다 ▲3당 통합이 실현된 후 제정치 세력과 2차 통합을 추진한다 ▲새로운 당의 당헌과 당명, 정당·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소위를 가동한다 등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위원장은 3당이 내려놓기로 한 ‘기득권’에 대해 “공천권이나 공천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정치 세력과) 2차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지는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제정치 세력을 크게

통합해 제3의 신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정치 세력과 중간에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2차 통합)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통추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청년 세력이 후속 통합할 1차 대상이고,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3당 통합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당의 대표 선출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이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성엽 대안신당 통추위원장은 “3당에서 추대된 사람이 대표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추천해 대표를 내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대표를 임시로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제정치 세력과 2단계 통합은 총선 일정 감안해 이달 25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현신하는 모습이 우선돼야 3당의 통합이 정치적 폭발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당 최경환 대표는 언제든지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 과정에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통합 및 신당 창당의 의미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당의 이미지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비전 제시도 관건으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이 보수 대통합의 물꼬를 댄듯이 손학규·정동영 대표도 통합과 신당 창당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3당의 현역 의원들도 그동안의 분열에 책임지는 의미에서 백의중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공군 1전비, 송정역 도로 신종 코로나 예방 소독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역에 투입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제독차량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 광산구 송정역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16·18번 확진자와 접촉 광주 152명 자가격리 해제

격리 대상 297명으로 감소

〈관련기사 2, 5면〉
국내 16·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민 152명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해 141명이 환자들과 접촉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 격리 해제됐다. 지난 10일 격리 해제된 11명을 포함한 자가 격리 해

제 인원은 152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두 환자 접촉자는 모두 449명이며, 아직 격리 중인 접촉자는 297명이다. 접촉자와 감염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282건 중 16·18번째 환자 등 2건만 양성판정이 나왔다. 접촉자 다수가 격리돼 있는 21세기병원(24명), 소방학교 생활관(36명)의 격리 해제 시점은 19일 0시다.

한편, 국내에선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8번째 확진환자(30세 여

자, 중국인)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환자는 총 28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28번째 환자는 앞서 확진된 3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중이다.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전국적으로 총 3601명이며 이 가운데 27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65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이 중심인 도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혁신·소통·청렴**으로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는 열린 시정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함께하는 광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